

2017 년 12 월 3 일 주일 설교 ‘말 없으신 하나님’(6)

“때로 순교는 초라하다”(A Miserable Martyrdom)

베드로전서 4:12-19

1.

소설 <침묵>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영화 <Silence>는 독자 혹은 관객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질문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질문들을 최대한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작가는 극단적인 사건과 상황을 소재로 삼은 것이지요. 인생과 믿음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은 그 질문들을 가볍게 떨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침묵>은 좋은 작품입니다. 좋은 작품은 정답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명작으로 사랑받고 기억되는 작품들은 그 질문들을 칼날처럼 만들어 독자의 목에 들이 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독자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엔도 슈사쿠는 그 점에서 좋은 작가입니다. 지금 저는 그 질문을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질문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은 과연 의미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참하게 죽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모키치와 이치소우의 경우처럼 영웅적인 순교도 있지만, 덧없고 하찮고 허접해 보이는 죽음을 더 많습니다. 그런 죽음들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영화 <Silence>는 운젠에 있는 온천 지대에서 행해진 박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선교사 추방령에 불복하여 일본에 남아 숨어 다니면서 선교를 계속했던 다섯 명의 사제와 배교를 거부한 두 여성이 온천의 뜨거운 물로 고문을 당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밑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긴 국자에 온천물을 떠서 신자의 머리에 붓습니다. 할 수 있는대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지독한 고문을 견뎌냅니다. 온천물이 동이 나도록 고문을 지속해도 배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인한 관리들은 다른 고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즈음에 나타난 사람이 고문 기술자 이노우에 사마입니다. 한 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그는 자신의 영주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박해자로 둔갑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박해 방법이 신자들의 헌신을 자극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제가 배교할 때까지 신도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강인한 사제라고 해도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고 견딜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가르페 신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눈 앞에서 신도들이 결박되어 하나씩 바다에 내던져지는데도 끝내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교하면 그 사람들을 모두 살려 주겠다고 하는데 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자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나 혼자 죽는 것이라면 용기를 내 볼만 합니다. 하지만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면 선택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페레이라 신부도, 로드리고 신부도 이런 상황에서 배교를 택합니다.

박해자들이 고안해 낸 고문 방법과 처형 방법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거적대기로 몸을 결박하여 수장시키기도 하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우고 매달아 파도에 시달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태워 없애 버립니다. 그런 장면을 읽으면서 독자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이 덧없는 죽음을 기뻐하실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실까?’

## 2.

작가는 독자가 가질 법한 이런 질문들을 주인공 로드리고의 입에 넣어 줍니다. 그는 피신해 다니던 중에 모키치와 이치소우의 순교 장면을 기억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 때 저는 가르페와 산에 숨어 있던 무렵, 밤에 가끔 들었던 파도의 울부짖음을 문득 마음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었던 음울하고 복치는 듯한 파도소리. 밤새도록 아무 의미도 없이 부딪쳐 왔다가는 물러가고 물러갔다가는 다시 부딪쳐 오던 소리. 그 바다의 파도는, 모키치와 이치소우의 시체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씻어 내리고, 삼켜 버리고, 그들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같은 표정으로 그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다와 똑같이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바다의 단조로움이나 그 무서운 무감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물론 만일의 이야기지만.....’

그 때 가슴 한구석 깊은 데서 다른 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것은 무서운 상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무기둥에 묶여 파도에 씻긴 모키치와 이치소우의 인생은 얼마나 억살스러운 연극인가. 많은 바다를 건너 2 년의 세월을 보내며 이 나라에 다다른 선교사들은 또 얼마나 우스운 환영을 계속 뒤쫓은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는 산속을 방황하고 있는 나 자신은 얼마나 우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106-107 쪽)

여기서 로드리고는 영적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그분께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의심으로 번져갑니다. ‘과연 이 고난과 희생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 행동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자살 테러범들의 순교는 빛나간 것이고 또한 불행한 것입니다만,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은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할만한 일입니다.

지난 번 라스 베가스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몸으로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알이 날아와 사방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감동한 것입니다. 목숨이 가장 귀하기에 무언가 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행동은 그만큼 귀합니다.

순교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행동입니다. ‘아우슈비츠의 성자’라고 불렸던 막시밀리안 콜베(Maximilian Kolbe) 신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피로써 자신이 믿는 바를 증거하는 것입니다”(The greatest grace of God and the greatest happiness of man is the ability to attest to one’s ideal with his own blood)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목숨을 내어 놓음으로써 그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소설 <침묵>의 배경이 되는 박해 기간 중에도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도 나가사키에서 있었던 29 인의 순교 사건이 가장 유명합니다.

끝내 배교하기를 거부했던 26 명의 신도와 3 명의 어린 신도들이 결박된 채 교토로부터 나가사키의 처형장까지 무려 480 마일을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사람들로 부터 모진 모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그들을 처형할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오랜 행군으로 인해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 때 소년 중 하나가 외쳤다고 하지요. “내가 달릴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다른 신도들도 용기를 내어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순교란 모름지기 이런 것이어야 했습니다. 박해자들을 떨게 하고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켜 보고 계시다는 표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도 그런 순교를 배웠고 그런 순교를 마음에 품고 일본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거둬 목격한 순교는 너무도 초라하고 허접하고 허무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파리의 죽음과 별로 다를 것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와 같이 감옥에 갇혔던 애꾸눈의 사나이가 무사의 칼에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합니다. 이 장면에서 작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허접한 죽음 장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콜세지 감독도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사악성과 ‘참을 수 없는 죽음의 가벼움’으로 인해 구토증을 느꼈습니다. 그 때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순교란 말인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왜 당신은 침묵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저 애꾸눈 농민이 오로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런 정적이, 이런 고요가 계속되는가? .....갑자기 비웃음이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이윽고 내가 죽임을 당한 뒤에도 매미는 여전히 울고 파리는 졸음을 재촉하는 날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닐 것인가. 그렇게까지 영웅이 되고 싶은가. 네가 바라고 있는 것은 남모르게 죽는 참된 순교가 아니라 허영을 위한 죽음인가. 신도들에게 칭송받고, 기도받고, 그리고 저 신부는 성자였다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인가. .... 현실에서 본 농민의 순교는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남루한 옷처럼 초라하고 가련하기만 했다. (186-87 쪽)

이런 허접하고 하찮은 순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20 세기 동안에 순교 당한 기독교인들의 수가 지난 1900 년 동안의 순교자들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참수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집단적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 종려 주일에는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의 집회에 ISIS 대원이 자살 폭탄을 터뜨려 45 명의 신도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볼스 조지(Boules George)라는 콥트 사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천국행 로케트를 선물하여 45 명의 신도들을 한꺼번에 천국으로 데려주었으니 이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죽도록 도와 주었으며, 이 죽음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제는 ISIS 에게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겁먹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만, 제 삼자인 우리에게만은 섬뜩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저 희생에는 의미가 있을까?

### 3.

희생과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희생과 순교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숨보다 큰 생명이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을 ‘참된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땅의 나라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숨도 귀하지만 생명에 비할 바 아니고, 이 땅의 나라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할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이 전부라고 우기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의 나라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손해와 희생과 배척과 박해를 불러 오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구스르다가 안 되면 압박을 가하고 그래도 안되면 폭력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반대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마 10:28)

여기서 예수님은 목숨과 생명을 비교하십니다. 이 세상의 박해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목숨이 전부라면, 죽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목숨을 내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반면, 목숨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때로 목숨을 내 놓을 각오를 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막 10:35)

주님께서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헤롯이 죽이려 한다고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함정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눅 13:32-33)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미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요 12:24-25)

여기서도 주님은 목숨보다 큰 생명,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얻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서서는 모진 모욕과 고난을 아무 말 없이 견디어 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분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실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4.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이어졌고, 스테반의 첫 순교 이후로 사도들 거의 전부가 순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요.

그분이 남긴 편지를 보면 목숨보다 더 큰 생명과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벧전 1:4)을 물려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유산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2:11)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의 손해와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과 다르게 사는 꼴을 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세상에 대한 잠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벧전 4:12-14)

한 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예도 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교사로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기를 꿈꾸었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 이 땅에서 붙잡으려던 것들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의미를 잃었고,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영예였으며 보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의 여정에는 온갖 고난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해와 모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아갔고 결국 순교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의 절정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보상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에서 예수님은 줄곧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 가장 큰 일은 순교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임 당한 사람들”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그들에 대해 스물 네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계 7:14-15)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요한 자신도 밧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자주 ‘순교에의 권면’(Exhortation to Martyrdom)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극심한 순교의 역사는 주후 4 세기에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 박해가 끝나기 전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순교자들 중 어떤 이들은 죽으면서도 박해자들에게조차 두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순교자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보는 이들에게 경외감과 신비감이 아니라 참담함과 덧없음을 느끼게 해 주는, 하찮고 허접하고 의미없어 보이는 순교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떻든 주님을 위한 모든 희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남겨져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순교보다 잊혀진 순교 혹은 하찮은 순교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순교라고 해서 하찮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 5.

진실은 그러한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순교라고 해서 하찮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데도, 그러한 순교 장면이나 뉴스를 접할 때면 공허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일까요? 저만의 느낌입니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죽음을 죽었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덧없어 보이고 허무해 보입니다. 이 감정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두고 곰곰히 묵상하던 중에 제가 찾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죽음 이후에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은 영원한 축복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인생이 너무도 짧게, 너무도 비참하게, 너무도 초라하게, 너무도 허접하게, 너무도 값없이 끝나 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죽음 앞에서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지요.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이 그렇게 좋으면 왜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빨리 죽어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이 질문이 맞는 것 같지만 딱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생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경계하는 것이구요. 나의 목숨이 귀한 선물이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값은 환산 불가이며 목숨의 무게는 측량 불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값싸게 취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고 그렇게 깨어진 목숨을 보면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어서 영생을 얻었다 해도 인간의 악행으로 인해 참혹한 방식으로 그 목숨이 끊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갔다는 사실 하나로 한 사람의 죽음을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소설 <침묵>에서 그려진 것과 같은 무자비한 살륙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태를 보면서 “구원 받고 죽었으니 괜찮아” 하고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을 망가뜨린 인간의 죄악에 치를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죽음이 줄어들도록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총과 칼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로 변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고귀한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이 아름다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얻었고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에 든든히 서십시오. 그렇다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찬송을 자신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그 약속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찮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충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책임있게 살아야 옳습니다. 영원을 알기에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영생을 얻었기에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이 땅의 나라에서 더 참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순교를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숨을 주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이 생명을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즉 우리의 목숨에 충실하십시오. 이 땅의 어떤 생명도 하찮게 취급 당하지 않도록, 이 땅의 어떤 목숨도 덧 없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내어 드리는 연습을 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냐 목숨이냐?”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예수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속회자료> 2017년 12월 3일 주일설교 '말 없으신 하나님'(6)

“때로 순교는 초라하다”(A Miserable Martyrdom)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04 장(통 104)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베드로전서 4 장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믿음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4.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믿는 것 때문에 겪은 손해, 오해, 모욕 혹은 박해가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합니까?
  - 3)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믿음이라면 죽음을 대면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 4) 믿음을 가지고 나서 삶에 대한 태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이 세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6. 기도
  - 1) 진실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 2) 이 땅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 1)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중보하십시오.
  - 2)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94 장(통 102)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